

# 현대 패션에서의 흘치기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ie dying in Modern Fashion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교 수 박 민 여

경북대학교 의생활학과

전임강사 유 영 선

Dept.of Clothing & Textiles Kyunghee Univ.

Prof. : Park Meegnee

Dept.of Clothing & Textiles Kyungbuk Univ.

Full-time Instructor : Yoo Young Sun

##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현대 패션에서의 흘치기염 |
| II. 흘치기염의 역사 및 지리적 배경 | V. 결 론            |
| III. 흘치기염의 특성과 기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materialism prevalent i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and concern for the destruction of nature have led people to long for the returning to nature and excite their nostalgia for old. These phenomena induced in modern fashion naturalism, retrospectivism, ethnicism and primitivism. In the following we present our findings in regard the roles and relationships of the tie dying with the modern fashion design.

The common basic themes are founded as follows;

1.Naturalism: The tie dying is from very old times and has evolv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producing their own natural designs and color. They bear the characteristic of nature; the pleasantness, smoothness and complexity.

2.Individualism and hand made: No two items produced by the tie dying technique are identical even though they are similar by design and their individuality is to some extent determined by chance. The retrospectivism and individualism are themes relating to the modern fashion.

3.Ethnicism and primitivism: The tie dying brings up the 'ethnic and traditional' to us and their designs and colors present the new images of the ethnic and primitive influences to the modern designs.

4.Ecology,recyle and grunge look: The tie dying represent the recyle of the used

natural resources such as making the old clothes useful again in new forms by tie dying them. The old clothes thus restored show wrinkled, untidy and somewhat loosely fit form. This image of 'grunge look' is one of the central theme of the modern fashion.

## I. 서 론

현대 산업 사회의 지나친 물질주의, 자연 파괴에 대한 인간의 불안심리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자연으로의 회귀와 옛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러한 동향은 패션에 있어서도 자연주의, 복고주의, 민속주의라는 패션경향을 나타나게 했다.

자연주의는 이콜로지(Ecology)라는 패션테마로서 1980년대 시작되어 1990년대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자연에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지나간 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게 하여 패션의 복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더불어, 원시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이 소수민족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에스닉(Ethnic)' '프리미티브(Primitive)'라는 패션테마를 등장시켰다. 이 경향들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미래패션을 한동안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속에서 과거의 정취와 미래를 예견하고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복고주의와 토속성과도 관련된다. 자연주의 감각에 의한 천연 소재의 사용과 직물에 있어서 핸드메이드 기법의 사용, 소수민족 민속의상의 현대화, 의복 제조 과정에서 원시적 기법의 도입, 이미 사용되었던 소재 재활용등은 이러한 일련의 패션테마와 관련된 것으로 최근에 유행의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뉴히피룩(New hippie look), 즉, 그런지룩(grunge look)도 이 경향이 패션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홀치기염은 이러한 패션경향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으로 최근 톱디자인러들의 컬렉션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1970년대 히피들이 반체제 운동의 상징으로 티셔츠나 진즈에 홀치기염 기법을 사용하였고<sup>1)</sup> 이것이 패션으로 이어졌다. 이기법은 뉴히피룩으로 다시 나타나 패치워크(Patchwork), 술기를 바깥쪽으로 처리

한 아우트섬(outseam)기법과 함께 1990년대 패션의 주요한 표현기법이 되고 있다. 더욱이 기계 생산에 의한 도회적 이미지 상품에 식상한 현대인에게 홀치기염은 핸드메이드에 대한 인간의 향수를 만족시키고, 홀치기 기법에 의한 문양은 오래전에 잊혀 버린 민속적인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자원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업색기법이라는 점에서 현대의 삶과도 잘 일치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 각민족에 의해 독자적으로 또는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발전되어 온 홀치기염과 그 기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들이 현대 패션에 주는 영향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연구하므로써 현재의 패션흐름을 파악하고 패션디자인분야에서 창작범위를 넓히는데 일조코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홀치기염이 발전되어온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법의 변천과 특징을 기억별, 시대별로 살펴보고 기법의 특징 및 문양과의 관계를 고찰하므로써 홀치기염이 갖는 현대패션에서의 역할을 조명해 본다. 이를 위하여 현대패션에 나타난 홀치기염 기법의 작품을 홀치기염이 처음 패션으로 나타난 1970년대와 재등장된 1990년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므로써 홀치기염 기법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미적인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 II. 홀치기염의 역사 및 지리적 배경

홀치기염은 세계 각지에서 행해진만큼 그 명칭도 매우 다양하다.영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타이 앤 다이(Tie and Dye)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반다나(Bandanna), 또는 춘드리(Chundri)라고 하며 말라이 용어로는 플랑기(plangi)라고 한다.<sup>2)</sup>

아프리카에서는 방법과 문양에 따라 다양하게 부

르는데 문양을 묶거나 꿰매는 방법을 아디레 오니코(Adire oniko), 또는 알라베라(Alabera)로 하고 무늬 형태에 따라 알케테(Alkete), 오수밤바(Osubamba), 프랜테인(Plantain), 아고스핀(Agosofin)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부른다.<sup>3)</sup>

일본에서는 고우게치라고도 쓰고 로우게치, 교우게치라고도 하며, 고대에는 게치가노코, 게치유하타, 게치쿠리등이라 명칭한 것으로 일본 고서는 기록하고 있다.<sup>4)</sup> 흔히, 시보리(shibori)라 불리기도 한다.<sup>5)</sup>

우리나라에서는 교염, 홀치기염으로 칭한다.

홀치기염은 각국에서 행해진만큼 같은 기법으로 다루어진 경우라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한가지 기법에서 여러가지 기법으로 변형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홀치기염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있다. 인도에서 발생되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해졌다고 추정하기도 하고<sup>6)</sup> 반면에 미국의 파라카스 네크로폴리스(Paracas Necropolis)에서 발견된 홀치기염은 기원전 1~2세기 것으로 추산되는 세계 최초의 홀치기염이라고 알려져 있다.<sup>7)</sup> 또한 중국 투르판(Turpan)지역에 있는 아스타나(astana)의 고분에서 발견되어진 중국의 홀치기염이 최초의 홀치기염으로 알려지기도 하고,<sup>8)</sup> 같은 시기에 완성된 하이드바드(Hyderabad)의 아잔타(Ajanta)동굴 벽화에 회고 등근 형태의 플라기무늬가 있는 프레스코화의 발견으로 홀치기염은 고대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인도 대륙과 말레이시아로 보급되었고 아프리카로 건너 갔을 것으로도 추측한다.<sup>9)</sup>

중국에서는 2~3세기에 있어 홀치기염이 행해졌다는 기록과 함께 홀치기염포를 반포(斑布)라고 부른 증거로 서기 283년 왜여왕이 위문제에 반포 두필 두자를 바친 것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 앞에서 언급한 아스타나에서 발굴된 홀치기염이 5세기의 것으로 밝혀졌다.<sup>10)</sup>

일본에서의 홀치기 염사는 나라시대(707~781)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실물 유품이 동대사와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다(그림 1). 특히, 에도시대(1603~1867) 중기에는 홀치기 기술이 최고도로 발달하고 호화스런 독자교염(麿子絞染: 작은 방점을

연속해서 모양을 나타내는 홀치기염색 기법)이 극치를 보였다. 독자교염의 지나친 유행으로 사치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sup>11)</sup> 소화(昭和) 30년대 후반 경제의 성장기에는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홀치기염이 성행되어서 현재까지 동경, 대판, 신사, 추전등지에서는 그 기법이 전해져오며, 오늘날 일본의 홀치기염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정창원소장 고우게치 木村光雄,

藍染ぬの歴史と科學 p. 50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모든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따라서 염색법은 당연히 중국으로부터 전파되어 왔을터이나, 한국에서 염색발달이 부진하였던 것은 고조선으로부터 백색 숭상사상이 강했던 점과 온대 기후로 인하여 천연염료 생산이 풍부치 못했던 점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홀치기염에 관한 자료는 고구려 고분벽화(그림 2)에 나타나는 독자로서 이 벽화가 5세기경 축조되었으므로 중국 아스타나에서 발굴된 유물과 같은 시기에 속하며 왜여왕이 위문제에게 바친 상납기록을 보면 같은 2~3세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홀치기염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추측되기도 한다.<sup>12)</sup>

홀치기염은 일본보다 인도에서 일찍 발달되었다. 6~7세기 아잔타동굴 벽화에서 여인상 동체부분 점무늬는 홀치기염의 직물로 보인다(그림 3). 인도의 홀치기염 중심지는 대부분 인도 대륙지방으로 라자스탄(Rajasthan), 규자르트(Gujart)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중앙 인도 봄베이 주변의 넓은 지역에 위치해



〈그림 2〉 고구려 무용총 주인접객도 백여자,  
한국의 복식 p. 11

있으며, 목면과 견의 홀치기염으로 유명하다. 규자르  
트에서 발견된 직물들에서는 무용수 모티브가 가장  
흔하며, 라자스탄에서 발견된 직물들에서는 황색과  
적색의 배색 구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sup>13)</sup>

홀치기염 직물은 또한 타일랜드와 콜롬비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자바와 발리의 원주민들은 쇼울, 베  
일, 사롱에 홀치기염으로 장식된 섬세한 실크를 사  
용했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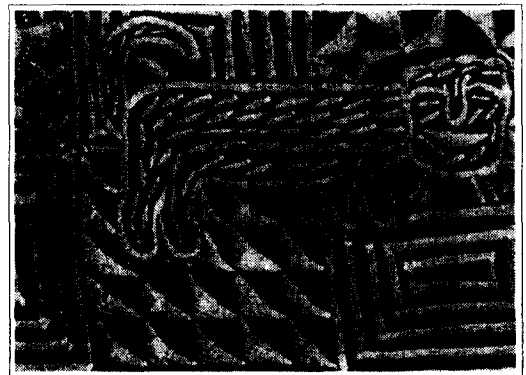
홀치기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모든 방염기술은 사  
하라 사막 남방의 신수단 문화에서 이루어졌다. 이  
지역 홀치기염은 양식이 소박하여 인도식과는 많이  
다르며 방염기술 그자체가 이 대륙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아프리카에서의 홀치기염은  
지역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가  
장 보편적인 홀치기염기법은 다양하게 조화된 크고  
작은 원으로 구성된 문양으로서 세네갈과 잠비아의  
원주민과 나이지리아의 요루바(Yoruba)족이 사용하  
며, 서아프리카쪽에서도 발견된다. 모로코의 베버  
(Berber)족 여인들은 큰 동심원 형태의 홀치기문양  
이 있는 사각형 두건을 자주 사용한다. 그들은 이런  
문양이 악신을 물리친다고 믿었다. 세네갈에서는 공  
에 느슨하게 천을 구겨뒀어 그것을 염색시키므로서  
불규칙한 얼룩 대리석 무늬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  
다. 이 기법외에 접거나 꿰맨 기법을 이용한 홀치기  
염도 나타났는데 〈그림 4〉는 꿰맨 기법의 홀치기염  
으로 가장 훌륭한 예로서 남동부 나이지리아의 크로  
스리버(Crossriver)지역의 레오파드(Leopard)부족에  
의해 사용하던 것이다.<sup>16)</sup>

유럽에서는 1760년대에서 1780년대에 이르는 의상  
의 일부에서 홀치기염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된다. 그  
리고 동인도회사가 1720년대 후반에 카심바자  
(kasim-bazer)와, 벵갈(Bengal)에 반다나(인도산 홀  
치기 직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1728년 The Beggar Opera에서 나온 Hogarth 옥중 장  
면에서 Newgate의 간수이며, Lucy의 아버지인 Mr.  
Locket는 하얀점으로 구성된 밝은 빨간 복장식을 하  
고 있다〈그림 5〉. 네덜란드가 반다나를 그 이전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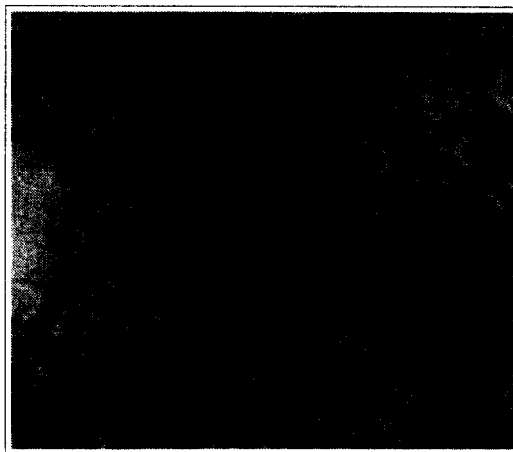
〈그림 3〉 아잔타동굴벽화  
Tie dyed of India, p.10



〈그림 4〉 레오파드족의 홀치기  
African Textiles, p.150



〈그림 5〉 흰반점의 목장식  
Tie dyed in India, p.162



〈그림 6〉 페루, 홀치기염 및 패치워크 송변수,  
염색의 실제 p.14

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최초로 영국에 수입된 반다나로 보인다. 1780년 Stubbs의 작품 ‘수확하는사람’(Reapers)에서는 젊은 여인이 목과 어깨 부분에 흰점의 붉은 반다나를 두르고 있는데, 이것은 카심바자의 주산물로 18세기 후반 호감가는 디자인과 색상 구조로 한때 크게 유행되었다. 19세기 초반에는 반다나가 포켓 수건으로 바뀌어 새롭게 눈에 띄게 된다.<sup>17)</sup>

미국에 있어서 홀치기염의 아주 오래된 것은 대륙 발견 이전의 것으로서, 단색이며 원과 사각이 되풀이 되는 것으로, 서로 기워 붙여 만든 Pancho가 발견되어지고 있다. 페루에서 발견된 바라카스(barracas) 직은 방염하기 전에 두폭으로 천을 꿰매 합하여 염색한 것이 남아 있는데, 이들을 보면 기법이나 디자인으로 보아 아시아에서 홀치기염이 수입되어 졌다는 추측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sup>18)</sup>

이와같이 홀치기염은 오랜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주등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어 왔다. 무역전쟁 등 각종 왕래와 기타 접촉을 통하여 그 염색기법이 한곳으로부터 다른곳으로 전파되고 상호영향을 주었으며, 거기에 지역 및 민족적 독창성이 포함되어 변천과 발전을 계속해 온 것이다. 따라서 홀치기염의 기원이 어디든지 기본적 여건은 공통이면서 각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들이 가미되어 역사적 발달을 이루어 온 것이다.

### Ⅲ. 홀치기염의 특성과 기법

#### 1. 홀치기염의 특성

홀치기염은 직물에 의도한 부분을 방염하기 위하여 묶거나 꿰매거나 잡아 당겨서 직물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침염시켜 문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염색공예에 있어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출발한 홀치기염색은 가장 오래된 염색공예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지속 발전되어 온 것으로, 묶고 잡아 매는 조작에서 다양성을 찾아낼 수 있고 특히 결과가 가지는 우연성으로 다른 염색공예와 구분되는 몇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문양에 있어서 손으로 그려서 만들어 내는 무늬와 달리 기법에서 오는 테크닉이 문양의 성격을 좌우하며, 같은 테크닉은 항상 비슷한 형태의 무늬를 만들어 내지만 결코 동일한 무늬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가진다.

둘째, 홀치기염은 섬세한 수공예적 가치에 있어서 매우 우수함은 물론 의상등에 이용할 수 있는 실용

적 공예이며, 염색방법에 있어 묶고 접는 방법으로 염색후 생기는 겹히고 격인 흔적은 핸드메이드가 보여줄 수 있는 수공예적 특징이다.

셋째, 단순한 형태와 단색 사용을 주로 하였다 할지라도 프린트염의 단색에 의한 색의 변화보다 색채적 농담으로 표현 효과에 있어 독특한 침투미가 다른 염색기법에서 보다 다른 특징을 가진다. 이는 회화적 추상성은 물론 원근감을 표현하는 구상적 표현도 시도할 수 있을 뿐아니라 입체적인 표현으로 현대적 감각을 발휘할 수 있다.

네째, 새로운 천을 염색하는 것뿐만아니라 색이 퇴색 되어진 경우나 유행에 뒤진 천을 염색하므로써 자원의 재생이란<sup>19)</sup> 측면에서 최근의 패션 동향과도 밀접할 뿐아니라 피복 경제상으로도 유익한 측면을 가진다.

다섯째, 홀치기염은 옷으로 완성되기전 단계에서 뿐아니라 완성된 옷도 염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sup>20)</sup>

## 2. 홀치기염의 기법과 문양

홀치기염은 도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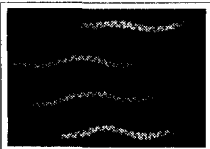


많은 섬유류의 종류중에서 홀치기염에 적당한 섬유는 백색이거나 담색물로서 재질이 비교적 치밀하고 염색이 잘 침투되며 부드러운 것이 적당하며, 일반적으로 Calico 직물, Broad 직물, 인건S.F 직물, Bemberg<sup>21)</sup> 등이고, 모직, 양복지, 광목등은 적당하지 않으며 그보다 다소 얇고 부드러운 것이 적당하다.

기본적으로 홀치기염의 과정을 보면 먼저 천을 준비하여 디자인을 계획한 다음 천을 묶고(Tie), 접고(Fold), 꿰매고(Stitch), 구겨서(Clamp) 염색(Dyeing) 하고 행군다. 그리고 다시 묶거나 덧묶어서 다음 색상을 다시 염색한다. 마지막으로 실을 풀고 천을 다림질한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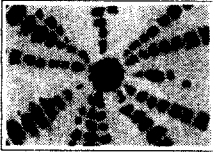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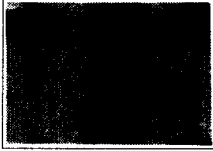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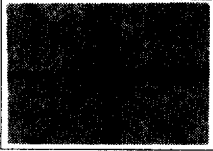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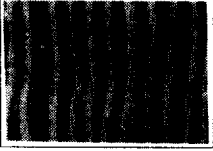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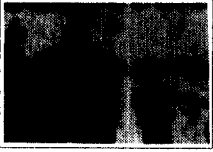
홀치기의 종류는 대단히 많아서 휘감아홀치기처럼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실만으로 방염하는 것에서부터 꿰매어서 실을 잡아매는것, 기구를 사용한 대규모의 것까지 100종 가까운 수법이 있다.<sup>23)</sup> 홀치기염은 기법으로서는 단순하게 그 기술의 응용에 의해 다양성을 얻을 수 있다.

그 기본적인 기법과 문양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홀치기염 기법의 방법과 관련된 문양

기법명칭	방 법	문	양
베매는기법 (Stitch)	① 홈질-도안에따라 홈질후 실을 넣어 묶는기법.		
	② 접어서 홈질-굵은선표현. 대칭도안에 이기법 응용.		
	③ 감침질-굵은선표현. 감는 정도에 따라 선굵기차이.		
	④ 베매어 감아올림-홈질후 넣긴 실로 천을 감아올림.		

〈표 1〉 계속

기법명칭	방 법	문	양
<p>접는기법 (Tying)</p>	<p>① ②천을 접거나 말아서 묶는 기법-묶는 방향에 따라 여러가지 모양(선,체크) ③천을 끌어올려 묶는기법-바늘이나 손으로 천을 끌어 올려묶음. 동심원형태. ④앞의 두가지방법의 응용(천을 여러번 접고 끈을 엇갈리게 묶으면 방사선 형태가 됨.)</p>	 ①  ③	 ②  ④
<p>접는방법 (Fold)</p>	<p>① 사각형접기(그림참조) ② 삼각형접기(그림참조) ③ 부채, 아코디언 접기 ④ 봉투형접기 ⑤ 나선형접기 ⑥ 지그재그형접기</p>	 ①	 ②
<p>도구이용</p>	<p>① 판을 이용-천을 접거나 구긴후 천의 양쪽에 판을 대고 실이나 끈으로 고정 ② 나무봉이나 P.V.C. 원통-천을 도구에 싸서 누르거나 실로 감아서 방염. ③ 공-둥근 공에 천을 구겨 싸서 끈으로 묶어서 방염(대리석문양효과) ④ 구슬 또는 작은 돌</p>	 ①  ③	 ②  ④
<p>탈색기법</p>	<p>하이드로실과이드용액을 사용하여 홀치기염 시행-방염된 부분에 색이 남음</p>	 ①	 ②

#### IV. 현대패션에서의 훌치기염

현대패션에 있어서 훌치기염색의 등장은 1960년대 말 히피패션의 출현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자연 상태의 회귀를 희망하여 긴 머리에 컬(curl)을 한다든가 인디언풍으로 헤어밴드나 꽃을 꽂기도 하고 반체제운동의 상징으로 특히 티셔츠나 진즈에 훌치기염색을 했다.<sup>25)</sup> 바로 훌치기염은 히피들에 의해 탐구된 격세유전하는 기법의 하나가 된 것이다<그림 7>.<sup>26)</sup>

훌치기염은 히피패션이 유행한 1970년대에는 T-셔츠와 블루진을 장식하면서 틴에이지운동과 관련되어 지다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디자인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주목되어 오프꾸찌르를 위한 훌치기직물이 개발되기도 했다.<sup>26)</sup>

<그림 8>은 가수 제니스 조플린(Janis Joplin)이 1969년 우드스톡 록 페스티벌(Wood stock Festival)에 뉴욕의 퍼발룬(Fur Balloon)부티크의 훌치기염 투피스를 입고 도착하는 장면이다. 이 시기의 훌치기염은 패션디자이너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는 히피 스스로의 취향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패션으로서의 훌치기염은 1980년대 핑크룩이 등장하고 히피룩이 소멸되면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러나, 1990년이 시작되면서 1960년대 패션이 복고되었고 특히, 1993년 봄·여름 콜렉션에서는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1970년대 패션을 회고하는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이때 재현된 것이 뉴 히피룩이다. 뉴 히피룩은 자연회귀, 과거에 대한 향수, 원시적인 것을 꿈꾸는 하이패션디자이너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유행경향을 독창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여러가지 공예적인 기법을 도입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바로 훌치기염이다.

1970년대 히피들의 정치 표현의 수단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1990년대의 훌치기염은 몇가지 유행경향과 맞물려 이루어진다.

첫째, 복고주의의 경향이다. 유행의 패턴이 그러했듯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1960, 1970년대의 패션이 복고되었다. 1970년대 패션의 특징은 판타봉, 레이어드룩, 집시풍, 히피룩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히피룩에 관련되어 훌치기염이 새롭게 등장했다. 둘째는 민족주의로 이것은 '에스닉(Ethnic)'이라는 패션테마로 주도되고 있는데 아시아의 민족문화, 특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등에 관한 동경으로 훌치기염은 바틱염과 함께 민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세번째 경향으로는



<그림 7> Radical Rags, Fashion of the sixties, p. 113



<그림 8> Radical Rags, Fashion of the sixties, p. 228



자연주의로 리사이클(Recycle)의 개념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잊혀져지고 파괴되었던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가치 추구를 지향하는 경향으로 홀치기염은 자원의 재생 효과와 수공예적인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행경향과 관련되어 세계 유수의 직물 전시회에서는 1995년 봄·여름 직물경향 예고에서 홀치기와 관련된 직물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태리 피렌체에서 열리는 피티 필라티(Pitti Filati)에서는 '이국주의(Exoticism)'이라는 테마로 현대적으로 표현된 바틱과 홀치기염을 제안하고 있고, 밀라노의 모다 인 테수티(Moda in Tessuti)에서는 '남극(SOUTH-Strong Contrast)'이라는 테마로 대리석 효과의 홀치기염 직물을 제안했으며, 파리의 프레미에르 비죤(Premiere Vision)에서는 '핸드메이드(Handmade)'라는 테마로 홀치기염을 선보이고 있다.<sup>27)</sup>

일찌기 일본에서는 그들의 일상 생활 의복에서 홀치기염을 자주 사용했다. 그러한 맥락에서인지 패션에 있어서 홀치기염은 주로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도 되었고, 유럽 또는 뉴욕의 디자이너 경우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홀치기염을 패션디자이너에 사용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히로코 고지노(Hiroko Koshino), 데코 수가이(Deco sugai)가 있다.

특히, 요지 야마모토는 1991년부터 계속 그의 컬렉션에 홀치기염을 도입하여 일본의 민속적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 9>는 그가 1991, 1992년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두 색이 만나는 경계선에 홀치기염을 이용하였다. 현대적 분위기의 자켓과 짧은 바지에 토속적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은 원시와 현대를 접목시킨 디자인이다. <그림 10>은 1994년 봄·여름 컬렉션에서 발표한 그의 작품으로 홀치기의 묽은기법을 이용하여 불규칙한 대리석 효과를 나타냈다. 재생한 것 같은 벨벳과 민속풍의 디자인 그리고 히피스타일에서 느낄 수 있는 반항적인 느낌이 최근의 유행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역시 같은 컬렉션의 그의 작품으로 께매



<그림 9> Yohji Yamamoto의 작품  
COLLEZIONI, N.22, 1991, p.190



<그림 10> Yohji Yamamoto의 작품  
COLLEZIONI, N.37, 1991, p.336

는 기법으로 이루어졌다. 형태가 있는 문양의 농담 효과는 홀치기염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그는 1993년 가을·겨울 콜렉션에서도 부분적으로 홀치기염을 사용한 일련의 디자인을 발표했다.

〈그림 12〉는 1993년에 발표된 히로코 고지노(Hiroko Koshino)의 작품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홀치기한 것으로 굵은 봉에 천을 감아 주름잡아 묶어서 침염시킨 것으로 보이며 원시적 느낌의 자연스러운 무늬와 색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녀는 일본풍의 디자인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는데, 특히 1994년의 콜렉션에서는 홀치기염의 기법을 도입한 여러가지 디자인을 발표했다. 〈그림 13〉은 그 중 한 작품으로 불규칙한 홀치기 흔적은 자연주의의 패션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나머지 그녀의 작품에서도 이런 경향들이 이어지고 있다.

테코 수가이는 1994년 봄·여름 콜렉션에서 인도 차이나풍의 민속적인 주제의 콜렉션을 가졌는데 그는 홀치기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주제를 살렸다. 〈그림 14〉는 그가 이 콜렉션에 발표한 작품으로 전형적인 페메는 기법으로 이루어진 홀치기염으로 일본적인 문양들을 조화시킨 디자인이다. 〈그림 15〉도 같은 콜렉션 그의 작품으로 베트남풍의 에스닉 분위

기를 살린 디자인으로 직물을 위로 끌어 올려서 묶는 기법으로 크기가 차이가 나는 두개의 자연스러운 동심원 문양이 포인트가 된다. 동심원 문양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홀치기문양으로 현대 패션에서는 여러 국가의 민속적 요소가 함께 조합되기도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가장 일본적인 것을 잘 표현하는 디자이너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는 일본풍의 것을 표현하는데 고유의 공예 기법을 자주 이용한다. 그 중의 한가지가 홀치기염으로 〈그림 16〉은 주름을 주제로 예술성을 풍부하게 보인 1992년 콜렉션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홀치기염색후 생긴 주름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 조형성을 나타낸다. 도구를 이용한 묶는기법으로 불규칙한 대리석 문양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7〉은 일본의 중진 디자이너 마에다 도쿠코(Maeda Tokuko)의 1994년 작품으로 구슬 또는 돌을 묶어 염색한 흔적이 나타나는 디자인이다. 문양, 색상의 농담 효과는 홀치기염에서 느낄 수 있는 특성이다.

〈그림 18〉은 같은 시기, 신에 디자이너 료간 후지오카(Ryokan Fujioka)가 발표한 것으로 체크무늬의



〈그림 11〉 Yohji Yamamoto의 작품  
FASHION NEWS, Y.21, 1994,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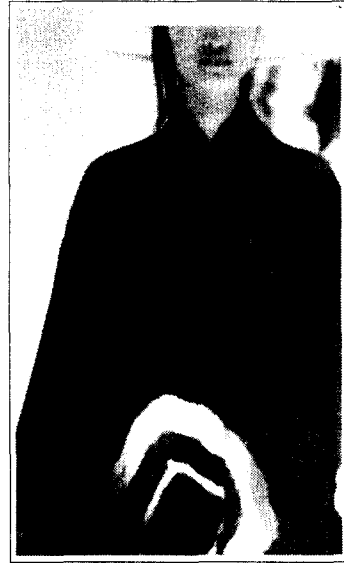
〈그림 12〉 Hiroko Koshino 작품  
FASHION NEWS, V.21, 1994, p.19



〈그림 13〉 Hiroko Koshino 작품  
MODE et MODE, N.27, 1992, p.52



〈그림 14〉 Deco Sugai 작품  
FASHION NEWS, V.21, 1994. p.10



〈그림 15〉 Deco Sugai 작품  
FASHION NEWS, V.21, 1994. p.44



〈그림 16〉 Issey Miyake 작품  
MODE et MDOE, N.27, 1992, p.52



〈그림 17〉 Maeda Tokuko 작품  
FASHION NEWS, V21, 1994, p.57



〈그림 18〉 Ryokan Fujioka 작품  
FASHION NEWS, V21, 1994, p.80

바탕천을 접어서 도구를 사용하여 침염시킨 것으로  
현옷을 재생시키기 위해 홀치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T-셔츠의 문양도 접는 기법으로 홀치기

염된 것이다.

일본의 디자이너들은 1980년대 여성복에 있어서는  
그들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서양복의 본산인 유럽

을 지배했다고 자부하지만, 남성복에서는 아직 열세를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주 민족적인 주제를 사용하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역시 훌치기 기법이다.

〈그림 19〉는 1991년 신 파슈(Shin Pashu)의 디자인으로 접어서 도구를 사용하여 방염시킨 훌치기염으로 셔츠에 한쪽 소매 부분을 꿰매는 기법으로 경계선을 나타낸 자켓 디자인을 조화시켰다. 훌치기염에 의한 색상의 변화가 주는 부늬와 특징적인 부분 염색은 민족적인 독창성과 현미를 재생시킨 것과 같은 분위기를 준다. 현미같은 이미지의 옷은 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인간의 향수가 유행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20〉은 루나 마띠노 인터내셔널(Luna Mattino international)에서 1994년에 발표한 것으로 접는 기법을 사용하여 네모난 나무판으로 추측되는 도구로 눌러서 침입시킨 흔적이 남은 디자인이다. 스킨트형태인 하의는 지난 시대 일본 남자들의 복장을 연상하게 한다. 이 경우에도 훌치기가 남긴 문양으로 더욱 일본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일본인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민족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훌치기염을 사용했던 것처럼 서양의 디자이너들은 유행 경향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훌치기염을 사용하였다.

〈그림 21〉은 이태리 톱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Gorgio Armani)의 1991년 발표 작품이다. 그는 현대적인 분위기의 작품을 주로 하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라비아풍이나 인도풍의 에스닉 분위기의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의 작품 역시 민속풍의 훌치기기법 문양으로 에스닉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림 22〉도 아르마니가 같은 컬렉션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염색의 기법 중 파라핀염과 훌치기기법을 함께 사용한 디자인으로 색상과 문양으로 민속적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그림 23〉은 밀라 앤 투코 발라도(Mila & Tucho Balado)라는 스페인 신에 디자이너들에 의해 1994년 봄·여름을 위한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미완성의 마노질 선과 반항적 이미지의 스타일은 뉴 히피룩으로 보인다. 꿰매어 훌치고 묶는 기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졌고, 훌치기후 생긴 입체적인 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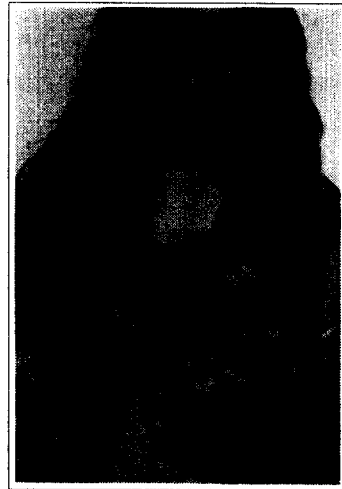
〈그림 19〉 Shin Pashu 작품  
FASHION NEWS, V.7, 1991, p.80



〈그림 20〉 Luna Mattino International 작품  
FASHION NEWS, V.21, 1994, p.32



〈그림 21〉 Gorgio Armani 작품  
COLLEZIONI, N.20, 1991. p.71



〈그림 22〉 Gorgio Armani 작품  
COLLEZIONI, N.20, 1991. p.61



〈그림 23〉 Mils & Tucho Balado 작품  
COLLEZIONI, N.37, 1994. p.342.



〈그림 24〉 Perry Ellis 작품  
FASHION NEWS, V.18, 1993. p.152

으로 수공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림 24〉는 1993년 뉴욕에서 페리 엘리스(Perry Ellis)가 발표한 작품으로 꿰매는 기법과 접어서 묶는 기법이 함께 사용된 문양은 민속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머리수건, 자연스러운 룻 헤어스타일과 로

우 웨이스트의 바지, 거친 분위기의 버클 벨트는 전형적인 1970년대 히피스타일의 복고된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에 의해서도 홀치기염을 패션에 도입한 흔적이 있다. 〈그림 25〉는 우리나라 디자



〈그림 25〉 이신우 작품

FASHIONS NEWS, V.14, 1992. p.168

이너 이신우가 도쿄 콜렉션에서 1994년 발표한 작품으로 홀치기 기법 중 대리석 효과를 나타낸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 홀치기염은 우리 고유의 민족 정서를 나타내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세계적인 유행경향을 반영하고 디자인에 독창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진다.

이와같이 홀치기염 기법은 최근의 패션경향에서 추구하는 테마와의 표현과 잘 어울려져서 세계적 톱 디자이너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그들의 콜렉션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1995년 봄·여름을 위한 직물 경향 예고에서도 홀치기염 기법을 이용한 직물 디자인이 제안되고 있는 등 앞으로의 패션 경향에서 홀치기염 기법의 지속적 역할이 예고되고 있다.

## V. 결 론

홀치기염의 고유한 미적 가치와 상징성이 현대 패션테마에 투영되는 상관 관계와 그것이 갖는 미래 패션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홀치기염은 자연미를 지니고있다. 홀치기염은 원시 시대로부터 시작된 염색기법이며, 홀치기과정은 우연을 통한 자연스러운 문양과 색상에서 농담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은 패션의 자연주의와 케를 같이 한다. 둘째는 홀치기염은 수공예를 통하여 염색물 각기 개체에 개성미를 부여한다. 대량 생산에서는 얻을 수 없는 효과이다. 홀치기염 무늬는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도 결과는 유사할 수 있으나 결코 동일할 수 없다. 이와같이 홀치기염 기법은 수공예와 개별미 중심으로 인간적인 향수를 불러 일으키며, 패션의 복고주의와 자연주의에 좋은 기법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셋째, 앞에서 자연 회귀와 복고주의의 성격외에도 실제로 1990년대에 1970년대 유행을 재현하는데 일조를 하는 기법으로 새로운 패션테마에 사용되었다. 즉, 히피룩을 재현하는 뉴 히피룩에서 홀치기염 기법의 역할이 그것이다. 단지 1970년대와는 달리 1990년대에는 패션디자이너가 주도하고 있다.

네째, 홀치기염은 민속미를 나타낸다. 특히 소수민족에 의해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문양이 현대 패션에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족적 이미지는 미지와 신비로움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패션의 민속주의 표방을 대변한다.

다섯째, 홀치기염은 재생미를 나타낸다. 홀치기염은 천이나 옷을 재생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패션의 자연주의의 리사이클 개념과도 관련된다. 홀치기염색후 남겨진 불규칙한 주름 자국은 입체적 조형미와 함께 최신 패션에서의 현옷 이미지를 준다. 현대 생활에서의 지나친 물질 풍요는 인간 정서 결핍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자원 재생도 패션의 한 테마로 부각되었다. 주름진 옷과 현옷 이미지는 홀치기염과 이와같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홀치기염은 현대 패션에서의 자연주의, 복고주의, 민속주의 테마의 표현기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고되고 있는 1995년도 패션경향으로부터 판단하건데 당분간은 패션경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라사라교육개발원, 복식사진, 서울, 도서출판라사라, 1992, p.565
- 2) Murphy and Chill, Tie-dyed of India, New York, Rizzoli, 1991, p.9
- 3) John Picton & John Mack, African Textile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9, p.152-155.
- 4) 服裝文化協會, 服裝大百科事, 東京, 文化出版局, 1980, p.303
- 5) Murphy and Chill, op.cit.p.9
- 6) 服裝文化協會, op.cit. p.303
- 7) Jack Lenor Lason, The Dyer's Art,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71, p.50
- 8) Murphy and Chill, op.cit.p.9
- 9) Dona Z.Meilach, Contemporary Batik and Tie-Dye, New York, Crown publisher, 1973, p.18
- 10) 吉岡幸雄編, 染織の美, 第十號, 京都, 京都書院, 1981, p.41
- 11) 服裝文化協會, op.cit. p.303
- 12) 김혜주, 染色工藝로서의 絞防染 表現性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산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3) Murphy and Chill, op.cit.p.9
- 14) Dona Z.Meilach, op.cit.p.18
- 15) Jack Lenor Lason, op.cit.p.32
- 16) John Picton & John Mack, op.cit,pp.148-152
- 17) Murphy and Chill, op.cit. p.9
- 18) 김혜주, op.cit. p.13
- 19) 菱衛平, 染色の實際, 東京, 光生館, 1971, p.135
- 20) Louis A.Liddell,, Clothes and your appearance, Illinois, Goodheart Wilcox, 1977, p.106
- 21) 김혜주 op.cit .p.35
- 22) Dona Z. Meilach op.cit. p.179
- 23) 慎相宰, 염색공예, 서울, 미진사, 1988, p.6-1
- 24) 라사라교육개발원, op.cit.p.65
- 25) Dona Z.Meilach, op.cit, p.241
- 26) Joel Lobenthal, Radical Rags, Fashion of the sixties, New York,Abbeville press, 1989, p.113
- 27) (주) 패션정보사, FASHION TODAY, No.48, 서울, 1994, pp.152-166